

COVID-19 상황에서 자녀의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연구*

상명대학교 가족복지과 조교수 조은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과 박사과정 김다애***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연구목적: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학교학습은, 자녀인 피교육자가 동일 시공간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연구는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를 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질적 고찰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초등 및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8명을 초등과 중·고등학부모 집단으로 나누고, 온라인개학 초기와 1달여 후 각 2회씩의 초점집 단면접을 통해 온라인 학교 상황에서의 가족생활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여 주제분석법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어머니들의 가사노동과 자녀학습조력 부담의 증가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버지와 자녀들/형제들의 역할은 이에 따라 약간씩 조정되었으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짜증과 화로 표현되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유기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온라인 학교학습 상황은 가족관계에는 친밀감과 이해 등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다툼과 긴장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재난 시 가족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역할의 융통성과 가족관계의 질 향상이 필요하며, 온라인 학교 상

* 본 연구는 2020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교신저자: grace123@smu.ac.kr, <https://orcid.org/0000-0003-2732-4147>

*** <https://orcid.org/0000-0002-4549-1945>

황에서 어머니의 과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족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역할 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COVID-19, 온라인 학교학습, 가족변화, 어머니의 경험, 초점집단면접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20년부터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온라인 기술을 생활의 전면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었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모여 학습하는 전통적 형태의 학교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한국의 경우 당해 3월 말~4월 초부터 온라인 학교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학교의 시행으로 인해 학습의 장소인 가정이 학습의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오재호, 2020)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특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러한 온라인 학교학습이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체계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코로나 19 확산은 세계 각국의 가족관계에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earlman, 2020).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들어진 가족원의 가정 내 격리 상황이 가족의 친밀성과 행복감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갈등과 긴장을 강화시켜 가족을 곤경에 빠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은 젠더화된 가사노동과 돌봄 부담의 증가문제와 가정 내 폭력문제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지적된다(장은하, 김희, 2020).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젠더구도나 관계양상이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더욱 양극화되는 현상으

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보단계이다.

COVID-19 상황에서의 가족에 대한 몇 편의 국내연구는 가사노동, 돌봄 문제, 가정경제, 여가, 가족관계, 온라인 학교학습 상황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복지 등 가정생활 전반의 변화상을 검토하고 공적개입이 필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김영란, 2020; 배영임, 신혜리, 2020; 진미정 등, 2020; Save the Children,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머니인 여성의 역할과부하와 스트레스, 온라인교육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감지되는 갈등과 위기의 가능성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증가, 가정경제의 악화, 공동여가활동의 증가, 가족원 간의 갈등과 친밀감의 동시적인 증가 등(김영란, 2020; 배영임, 신혜리, 2020; 진미정 등, 2020; Save the Children, 2020)이 가족의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고하는 질적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런 배경하에서 온라인 학교학습 상황에 처한 한국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를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모의 경험을 통해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을 가정하고 3-4주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험의 양상을 분석하여 온라인 학교학습의 시작시점과 경과시점 간의 경험의 차이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온라인 학교학습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조능력, 자율성

과 독립성, 부모의 조력 필요성, 부모와의 관계성 등과 관련하여 자녀와 부모의 반응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초등생과 중고생 자녀를 둔 모를 별도의 초점집단으로 면접하여 각각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진다. 첫째, 자녀의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생 및 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자녀의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은 온라인 학교학습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갑자기 시작된 자녀들의 온라인 학교학습이 어머니들의 가족생활 경험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연구참여자인 모들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양적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온라인 학교학습 상황에서의 아동과 부모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게 하며, 가족생활의 각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관련성을 추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녀의 연령을 초등과 중고생으로 나누고, 시간차를 두어 2회씩 면접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리고 온라인 학교학습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재난상황 여성의 돌봄증가와 스트레스 관련 연구

COVID-19 상황에서 가족이 어떤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여성(김송이, 2020; 김영

란, 2020), 아동(정익중 등, 2020; Save the Children, 2020) 장애인(박재우, 2020; 임예직, 문명민, 2021), 만성질환자(김남순, 2020) 등과 같은 특정 개인의 복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며, 이러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가족이나 가정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여성의 돌봄 역할 증가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난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와 휴교조치로 인해 돌봄과 학업 등이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한 나라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의 돌봄 무급노동이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돌봄 부담의 증가는 맞벌이 여성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란, 2020; 장은하, 김희, 2020; 진미정 등, 2020). 그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의 개인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미정 등, 2020). 나아가 이런 돌봄 부담이 지속될 때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이탈하는 여성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된다(장은하, 김희, 2020). 여성들의 경우 어린자녀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 의무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의 만족도 또한 낮은 경향이 있다(사용진, 박소영, 2016). 이런 여성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Möhring 등(2020)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 등교와 출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독일인들의 일과 가족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여성들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남성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몇 연구(김송이, 2020; 김영란, 2020)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삶의 질도 낮은 것이 발견되고 있다. 여성이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이런 현상은 이전의 다른 재난상

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장은하, 2016).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진 생물적·신체적·물질적·경제적·사회적 차원의 취약성에 의해 도출된 결과로 해석되는데,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어린자녀 돌봄 혹은 자녀들의 온라인 학교학습을 조력하면서 파생되는 스트레스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진미정 등(2020)의 연구결과, 가사노동시간의 증가, 가정경제, 여가시간,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환경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초등생을 양육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김유식, 정병철, 2020)에서는, 코로나 상황 중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주요 주제가 ‘자녀교육 걱정’ ‘가계 경비 증가’ ‘육아와 가사’ ‘가족구성원 간의 마찰’ 등과 같은 가족환경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과부하로 인해 파생되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다른 가족 내 하위체계의 기능 변화 및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론적인 관점의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2. 온라인 학교학습과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연구

초·중·고등학생의 온라인 학교학습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학적 측면에서 온라인 학교학습의 효과적인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오재호, 2020),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언론보도기사 분석(김상미, 2020), 대중들의 온라인 학교에 대한 인식(박혜진 등, 2020) 등 교육사회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대상자인 아동 및 청소년과 그를 둘러싼 가족에 초점을 맞춘 국내 연구는 Save the Children(2020)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는 만 11-16세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세계 46개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서베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

의 단면이 그려지고 있다. 조사결과, 온라인 학교 학습 상황에서 아동들은 온라인 학교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한 ‘도움 필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가정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다수(65%)로 나타났으나, ‘가정의 상황에 대해 긴장을 느낀다’는 아동(16%)과, ‘가정 내 스트레스와 불화가 심화되었다’는 부모들(22%)의 응답도 적지 않아 온라인 학교학습 상황에서 취약한 가족환경에 놓인 아동 청소년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 부모를 대상으로 한 Chung 등(2020)의 연구는,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관계악화나 엄한 양육방식 등을 통해 부모 역할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집에 머무르는 자녀들의 복지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학습을 하는 아동의 복지와 학습권은 그를 둘러싼 가족환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나, 아동 개인에 대한 연구가 아닌 그 아동의 온라인 학교학습을 조력하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으로 그 시야를 확장시켜 전체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드물다.

3. 가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된 가족단위의 변화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Lee 등(2020)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가족의 변화를 개괄하면서, 강제적으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가 좋았던 가족은 친밀하고 좋은 시간을,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불화와 긴장, 불만족이 늘어나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증가라는 젠더이슈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Lee 등(2020)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과 가정에 대한 한국 대중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하여서는 ‘자녀 돌봄’과 ‘등교문제’가 가장 핵심적 주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 가족들에게 자녀의 온라인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보여주며, 온라인 학교학습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와 역할이 받을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가족부는 온라인학습으로 인한 돌봄 문제와 자녀교육부담 등에 초점을 맞춘 조사연구(김영란, 2020)를 시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돌봄 부담 과부하, 맞벌이 여성들의 돌봄 대안에 대한 모색, 여성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부각되었다. 한편,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다른 연구(진미정 등, 2020)에서는 가사노동시간 증가가 부모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본인이 지각하는 변화'에 있어서는 모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부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보고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조사결과들은 배우자 혹은 자녀 등 가족과의 갈등 경험은 남편에 비해 아내들이 더 많이 보고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내보다 남편들이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20). 진미정 등(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관계의 대상에 따라 약 1/5 정도,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6.8(배우자와)~12.7%(중·고등자녀와)로 나타났으며,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중·고등학생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온라인 학교학습 상황에서 청소년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관계악화'와는 달리, '자녀돌봄 부담'이나 '자녀와의 관계악화'는 회귀분석에서 부모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진미정 등, 2020). 이 결과는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자녀돌봄의 증가를 '부담'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기 보다는 자녀와의 친밀감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녀와 24시간 함께 지내며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상황에서, 왜 부부관계와 달리 자녀와의 관계악화는 부모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탐구가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생활의 변화를 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탐구함으로써, 모가 경험하는 자녀의 온라인 학교학습, 모의 역할과부하, 모-자녀 관계, 모의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참여자 모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가 초등 혹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부모이다. 연구자가 재직하는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을 통하여 지인 중심으로 눈덩이표집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 전원이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었으며 당초에는 '부모'를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어머니들이었다. 아버지 참가자인 F는 자녀양육자 역할을 주로 본인이 하는 경우로 적극적으로 집단에 참여하였으나 모의 경험을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보조참여자로 분류되어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참여자들은 전원 유배우 상태였으며, 참여자G는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분거상태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만자녀의 학년을 기준으로 초등생 부모집단과 중고생 부모집단 등 2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초등생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은 39-41세로 전업주부 2인, 파트타임 취업자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으나 남아만 있는

경우가 2사례 있었다. 중고생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은 38-50세로 전업주부 2인, 파트타임 및 전일제 취업자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사례, 남아만 있는 경우가 3사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계소득분포는 400만원대와 500만원 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이외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초점집단 면접 진행 방법

본 연구는 초점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대면 면접 대신 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진행은 가족

상담가로서 질적연구 경험이 많은 연구자 1인이 리드하였다. 연구문제를 통해 도출된 질문목록을 기초로 반구조화된 방식의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질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과 생각의 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여 초점집단면접의 장점(Morgan & Krueger, 1998)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공동연구자 1인은 모든 면접에 동석하였으며 보조자로 진행을 도우며, 현장노트작성과 추후에 축어록 작성을 맡았다.

면접은 온라인개학 시작 시기(학년별로 2020년 4월 9일~20일까지 순차적 개학)의 초반에 1회(초등집단 4월 25일, 중·고등집단 4월 23일), 3-4주 후에 1회(초등집단 5월 14일, 중·고등집단 5월 20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구분	참여자 구분	부/모 참여자 구분	연령	직업	배우자 직업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결혼 년수	자녀상황	참여면접
초등생 부모 집단	A	모	39	전업 주부	회사원	전문대졸	501-600만원	8년 8개월	남2 (초2, 7세)	1차 /2차
	B	모	41	전업 주부	자영업	대졸	301-400만원	10년 5개월	남1 (7세), 여1 (초2)	1차 /2차
	C	모	38	영업직*	금융업	전문대졸	701만원 이상	13년 4개월	남2 (초6, 초5), 여1 (3세)	1차만
	D	모	40	가게 점원*	회사원	대졸	401-500만원	12년 1개월	남3 (초5, 초3, 초2)	1차 /2차
	E	모	38	전업 주부	회사원	대졸	401-500만원	14년	남2 (중1, 초2), 여1 (초4)	1차 /2차
중고생 부모 집단	F**	부	46	회사원	연구원	대학원졸	401-500만원	17년 4개월	여1 (중3)	1차 /2차
	G	모	50	논술 방문 교사*	회사원	대졸	601-700만원	17년 4개월	남1 (고1)	1차만
	H	모	49	사회 복지사	회사원	대졸	501-600만원	19년 6개월	남2 (고3, 고1)	1차만
	I	모	47	전업 주부	자영업	대졸	501-600만원	19년 1개월	남3 (고2, 중2, 중2)	1차 /2차

*파트타임 **어머니의 경험을 위주로 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보조참여자로 분류되어 빠짐

일)를 각각의 집단에 대해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면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 등 편안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다. 1차 면접 참가자 중 초등부모 중 1인, 중·고등부모 중 2인은 시간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2차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면접은 회기당 2~2.5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이 녹화되었고, 이후 축어록으로 전사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참여절차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이 구두 및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동의한 경우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 전에, 온라인으로 참가자들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설문 시행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전사된 면접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은 연구자 2인에 의해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주연구자는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가족학분야 전임교수이며, 공동 연구자는 가족학전공 박사과정생으로, 질적연구와 자료분석에 대한 스테디를 마친 상태였다. 주제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Braun & Clarke(2006)의 6단계를 따랐다. 먼저 1단계에서는 분석에 참여한 연구팀 2인이 자료에 친숙해지기 위해 면접녹화자료를 재시청하며 메모하고 전사된 자료를 수차례 읽는 과정을 거쳤다. 2단계에서는 개방코딩이 이루어졌다. 개방코딩 작업의 1/3 정도는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나머지는 주연구자에 의해 코딩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2인이 함께 회의하며 최종적으로 총 341개의 코딩을 찾아냈다. 3단계부터는 모든 절차를 2인이 함께 진행하였는데, 3단계에서는 초기 코딩을 범주화시키면서 세부주제를 만들고, 세부주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주제를 탐색하였다. 4단계에서는 탐색된 주제들을 나열하고 그 주제들 간의 위계와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주제를 재조정하였다. 5단계에서는 주제에 대한 정의와 명명 작업이

시행되었다. 이후 분석 전체 과정에 대한 산출물에 대하여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감수자 1인이 축어록 수준에서부터 모든 단계에 대해 감수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된 부분은 수정 보완되었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나온 산출물과 결과요약을 참여자들에게 회람하여 본인들의 생각이 가감없이 분석에 반영되었는지를 점검받아 Nowell 등(2017)이 제시한 주제분석 연구의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분석결과를 면접내용과 잘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보고서 작성과 재검토의 과정에서 다시 4단계로 돌아가 주제와 주제에 대한 명명이 재검토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IV. 연구결과

1. 초등생 학부모 초점집단면접 결과

초등생 학부모 집단의 면접 내용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주제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형제의 역할 변화

(1) 엄마가 힘들어짐

① 학습조력과 가사부담의 증가

온라인 학교 시작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보고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양육자인 모의 역할변화였다. 1차 면접에서 나타난 주요주제는 주양육자인 모의 ‘수업조력 부담 증가’ ‘가사부담의 증가’였고, 2차 면접에서는 모의 부담감에 대한 표현이 보다 강해졌다. 초등자녀의 온라인 학교 수업이 부모의 조력이 없이 힘든 상황에서 주양육자인 모의 수업조력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그 역할은 당초의

<표 2> 초등생 학부모 초점집단면접 내용의 주제분석 결과

		1차 FGI (온라인 학교 1-2주 경과)	2차 FGI (온라인 학교 4-5주 경과)
범주	주제	세부주제	세부주제
부모 형제의 역할 변화	학습조력과 가사부담의 증가	-학습조력 부담 증가 -가사부담 증가 -모의 자기시간 상실	-끝이 없는 학습조력 부담 -시간적 체력적 압박(취업모)
	부정적 정서의 증가	-다중역할 스트레스 -찾은 짜증	-자녀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화와 짜증
	견디어 내기 위한 대안 모색	-가사노동 간소화 및 분담 독려 -적당한 거리 유지(취업모)	-궁여지책으로 자기 시간 가짐 -자기 성찰 -남편에게 도움요청 -이웃과의 협력 모색
	아빠 생활의 변화는 개인차가 있음	-자녀 학습지도 관여 안함 -자녀 학습/돌봄 참여 증대 -모-자녀 긴장에 중간자 역할	-보다 적극적인 자녀돌봄 참여
	형제라는 존재가 부각됨	-놀이와 활동의 파트너 -자주 싸움 -맡기의 역할 부각 -어린동생이 학습 방해	-형제 간 다툼이 잦음
가족 관계의 변화	친해졌지만 잔소리도 많아진 모-자녀 관계	-잔소리 증가 -자녀 이해도 증가 -안정감과 친밀감 증가	-잔소리가 쉽게 화로 변함
	남편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는 부부관계	-이전과 큰 변화 없음 -힘든 아내 눈치, 아내 격려	-모의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으로
	함께하며 다툼도 잦아진 형제관계	-함께 있어 좋은 반면 자주 다툼 -위계성이 필요함	-찾은 다툼 -큰아이의 존재감
도움 요청의 목소리	아이와 부모 모두 힘든 온라인 학교학습	-자율성 키움, 시간적 여유를 줌 -아이들이 친구 그리워함 -아이 성향 따른 적응 차이	-아이들이 집중과 과제하기 많이 힘들어함 -집에서는 제대로 공부 어려움 -아이성향 따른 적응 차이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한 적극적 도움 요청	-교사의 학습관리 증대 필요 -학습에 맞는 주거환경 미비	-교사역할 부재에 대한 성토

기대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이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 때(1차 면접 때)보다 이제, 차수가 누적
이 되면서 아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경우는 일단 3, 4, 5교시는 학습꾸러미라
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해줘야 하는데, 그 학습꾸
러미에서 뭘 찾으라는데 그거 찾는 거 저도 어려
울 때 있더라고요.....이거를 찾느라 시간이 지체
되면 또 그 사이에 밖에 나갔다가오고 이래요 (2차
면접_참가자A)

자녀의 학업 조력과 더불어 식사와 청소 등 가
사부담이 증가한 것 또한 두드러졌다. 이러한 모의
역할과부하 현상은 특히 취업상태에 있는 모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왔다.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일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뭔가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
게 쌓이다 보니까... (2차 면접_참가자D)

이러한 역할부담의 증가와 더불어 모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자기 시간의 상실’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애들 옆에서, 하는 것을 2학년도 봐주고 4학년도 보고하니깐, 시간이 너무 없어지고, 개인적인 시간도 없을뿐더러,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야 하는 부담감도 너무 크고 개인적인 여가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밤에 다 자고 나서 겨우겨우 갖는데..... (1차 면접_참가자B)

② 부정적 정서의 증가

이러한 상황에서 모는 통상 교사가 해왔던 수업조력자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다중역할(multiple role)로 인한 역할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잡은 짜증’을 내게 된다고 말하였다.

밥도 해줘야 되고 선생님의 역할도 해줘야 하고,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큰 아이는 눈앞에 두고도 ‘엄마 이거 뭐 하라는거예요?’ 해서 ‘거기에 오늘 해야 될 계획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다 둘째가 또 물을 엮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짜증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엄마들한테 선생님 역할까지 하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차라리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1차_참가자A)

한편, 2차 면접에서 참가자들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호소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의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엄마가 좀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개학을 해서 애가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아 이거에 대한 엄마의 불안감이 생겨서, 내가 어느 정도 선을 긋지 않으면 그 불안감이 아이들에게도 가서 애들에게 뭘 자꾸 하라고 요구할 수 있

겠더라고요. (2차_참가자D)

그리고 이러한 ‘소진’과 ‘불안’은 ‘짜증’을 넘어서 자녀나 남편을 향한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 마땅치 않지만 수업하는 상황에서는 아이한테 화내거나 욕박지르면서 하게 하고 싶진 않아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이 둘이 다웠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을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그런 빈도수가 좀 더 많아졌어요. (2차_참가자A)

③ 견디어 내기 위한 대안의 모색

1차 면접 당시 참가자들은 가사와 수업조력자의 부담에 대하여, 식사를 간편하게 먹거나 자녀에게 간단한 가사조력을 가르치는 등 ‘가사노동 간소화 및 분담 독려’의 형태로 대처해나가고 있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그냥 시리얼이나 토스트 같은 정도로만 먹고 그리고 계속 배고플 때 큰 애한테 에어프라이어 사용하는 걸 알려줬는데..... 애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를 알려줬어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움을 요구하고 있고요. (1차_참가자D)

한편, 취업상태의 모들은 일을 하러 나간 시간 동안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잠깐 없는 것도 자유롭지 않을까, 잔소리를 좀 더 안 들으니까? (1차_참가자D)

모의 역할과중으로 인한 ‘소진’과 ‘불안’이 커진 2차 면접 때는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던 모가 ‘궁여지책으로 자기 시간을 가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자주 화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 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식은

전략적, 적극적이었다기보다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결과적 행동으로 보였다.

사실 제가 며칠 전, 이번 주 월요일까지 너무 뎀 봉이었는데 화요일부터 하루에 두 시간씩 아이들 공부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잠깐 혼자 나갔다 왔어요..... 아이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혼내는 게 아니라 화를 계속 내 가지고 피했어요 (2차_참가자B)

아이들이 과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 엄마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암묵적 형태로 남편에게 도움 요청을 압박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이웃 간에 아이들 놀이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서로에게 약간의 여가시간을 만들어주는 엄마들의 ‘협력모색’도 일어나고 있었다.

아, 진짜 이 상황이 나도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저도 그걸(아이 숙제 미루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남편에게 보내고), 이거 쓰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렸다고,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다고 막 그랬어요 (2차_참가자A)

(2) 아빠 생활의 변화에는 개인차가 있음

부/남편의 역할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의 역할분담체계가 유지 혹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전에 자녀 학습지도에 관여 하지 않았던 아빠들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고, 이전부터 분담이 되었던 아빠들의 경우는 자녀 수업 조력에 이전 보다 참여가 증대되는 변화를 나타냈다.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요구해요. 선생님이 엄마들에게는 알림을 보내서 e학습터를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했는데 아빠들한테 그걸 안 보냈더라고요. 제가 혹시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남편한테 가입을 시켰어요 (1차_참가자D)

모의 부담이 증가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참가자

들은, 부가 힘든 모의 눈치를 보면서, ‘모-자녀 긴장에 중간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2차 면접에서는 모의 불안과 소진이 심화되고 아내의 화와 짜증, 도움요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녀돌봄 참여’라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짜증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러면은 신랑이 눈치를 보면서, ‘아, 엄마 또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랑 신랑이 조금 케어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1차_참가자C)

(3) 형제라는 존재가 부각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습상황은 형제의 재발견으로 이어졌다. 형제는 친구 만나는 것과 바깥놀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놀이와 활동의 파트너’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저희 집은 애들이 많으니까 워낙 보드게임이나 노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애들하고 못 노니까 저희 집이 개천을 따라 한강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어느날은 자기들끼리 한강까지 라이딩을 갔다오고 그러더라고요 (1차_참가자B)

또한 동생들을 돕고 지도하는 ‘만이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미취학 연령의 동생은 ‘학습 방해자’의 역할로 인식되었다.

저희 큰애도 (참가자C의 경우와) 약간 비슷한 게, 자꾸 저도 모르게 큰 애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왜 자꾸 나만 하는 게 많으냐’ 그런 애길 한 적이 있어서. (1차_참가자D)

2) 가족 관계의 변화

(1) 친해졌지만 잔소리도 많아진 모-자녀 관계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는 모습

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서 모의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잔소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자녀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아이들마다의 성향은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간파했던 것, 아니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됐던 것 같아요 (둘째가 자기주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둘째가 셋째를 되게 잘 챙기면서 학습적인 부분을 알려줘요 그래서 애의 새로운 면을 굉장히 많이 보고 (1차_참가자D)

또한, 자녀들과 놀이나 만들기 등의 공유활동이 증가하며 친밀감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확실히 좀 계속 같이 붙어있으니까 저는 더 친밀해지고..... 둘째는 저한테 부리는 애교가 좀 더 늘었고요, 첫째 아이는 저를 안고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 나는 엄마 사랑해',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1차_참가자A)

2차 면접에서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하기를 싫어하며, 형제간에는 잦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도하는 모의 소진으로 인해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참가자에게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너무 하기 싫어하니까, 조금 하다가 마당 갔다 왔다가 하다가, 되게 마무리를 못하고 이러는 모습에 이제 막 멘붕이 오고, 점점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러는데, 자꾸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됐는데..... (2차_참가자B)

(2) 남편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는 부부관계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보통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미묘한 변화도 보고되었는데, 남편이 다중

역할로 힘들어하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지지를 보내거나,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줌으로써 아내의 힘들이가 부부관계의 악화로 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남편이) 저한테도 뭔가, 저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배려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으면 남편 까지도 저를 힘들게 하는 거가 있어서, 되게 더, 두 배로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어쨌든 같이 육아를 하는 거니까, 같은 입장이구나라는 그런, 그래도 내 편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로 확장되기 보다는 그냥 아이들의 문제로 끝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2차_참가자B)

그러나, 2차 면접에서는 아내의 악화된 스트레스가 '남편에게 화를 퍼붓거나' 하는 식의 부부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세 아이의 사건을 제대로 이랬다 저랬다 설명이 안돼서,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남편한테 쏟아 부으니까 남편이 순간, 자기가 병 뺐다는 거예요 (2차_참가자D)

(3) 함께하며 다툼도 잦아진 형제관계

형제관계의 경우, 1차 면접에서는 '형제가 있어서 좋지만 다투기도 많이 한다'는 양면적인 모습이 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형제간의 다툼이 더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첫째와 둘째가 같이 잘 노는 시간보다 싸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싸움을 중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진짜 형제의 난이예요 매일..... 서로 막 말로 차면서 싸우고... 무조건 대들고 정말 악다구니 쓰고 이러니까..... 첫째는 스트레스 받아하고 (2차_참가자A)

3) 도움 요청의 목소리

(1) 아이와 부모 모두 힘든 온라인 학교학습

1차 면접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온라인 학교가 아이들의 자율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고 시간적 여유를 주지만 아이들의 친구관계가 결여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온라인 학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

아이들의 성향따라 좀 다른데, 첫째는 워낙 친구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성향이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보다는 형이 있으니깐..... 그냥 집에 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1차_참가자C)

2차 면접에서는 아이들이 집중하기와 과제하기를 많이 힘들어하며, 아이들의 공부와 생활습관형성에는 오프라인 “학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학교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역설적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놀이터에서 만나는 형들, 동생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고,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뭔가 보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보호자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과 규율과 뭐 친구들 간에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와 이런 것들이 저는 학교 안에서 배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_참가자A)

(2)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한 적극적 도움 요청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자로서의 교사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는 2차

면접시 교사에 대한 성토로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조금 이르게’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안 해주세요..... 그레가지고 엄마들 사이, 반톡이고 여기저기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선생님들이 e학습터에, 사실 쪽지 같은 걸로도 연락이 되는데 그런 거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이걸 완전히 엄마가 다 떠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2차_참가자D)

아울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집의 공간적 협소함, 별도 공부방의 부재, 프린터 등 기자재의 부재 등의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났다.

저희는 지금 다섯 명이 북적북적 거리고 있는 게 너무 버겁고 그래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인터폰이 와요. (1차_참가자C)

2. 중고생 학부모의 초점집단면접 결과

중고생 학부모 집단의 면접 내용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주제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형제의 역할 변화

(1) 몸보다 마음이 힘든 엄마

FGI를 통한 면접질문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의 역할 변화와 관련한 면접 내용은 초등생과 중고생 학부모의 경우 그 내용과 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생 부모집단의 경우는 많은 내용이 추출되어, 분석결과를 하위 주제로 분화시켜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고생 학부모의 경우는 모의 역할 변화와 관련한 답변이 비교적 적었으며 내용도 단순하게 나타나

<표 3> 중고생 학부모 초점집단면접내용의 주제분석 결과

		1차 FGI (온라인 학교 1-2주 경과)	2차 FGI (온라인 학교 5-6주 경과)
범주	주제	세부 주제	세부 주제
부모 형제의 역할 변화	몸보다 마음이 힘든 엄마	-부모의 수업조력 필요성은 상황 따라 차이가 큼 -자녀의 무절제한 생활 통제 어려움 -식사준비 부담과 간소화의 노력 -모의 개인시간 감소	-수업 태도와 생활 태도가 안 좋은 아이들을 지도할 방도가 없음 -특히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 통제 어려움
	별로 바뀌지 않는 아빠	-기존의 아빠역할 지속됨: 양육참여 vs. 전혀 참여하지 않음	-아빠의 양육 참여가 절실함
	돕거나 각자 생활하는 형제	-형이 동생에게 학습에 도움을 줌 -서로 관여하지 않음	
가족 관계의 변화	허니문 시기를 거쳐 다시 소원해진 모-자녀	-청소년 자녀의 자유추구, 학업 및 진로고민에 대한 이해 증대 -시간 여유로 인한 관계의 여유 증가와 약간의 대화 증가 -‘이벤트’처럼 즐겁기 -자녀의 자발적 가사조력	-동일 공간에서도 공유활동은 별로 없음
	더 친해지거나 갈등이 생기는 형제	-형제가 전보다 친해짐 -형제가 전보다 더 다툼	
도움 요청의 목소리	현재의 학습 체계는 통제가 어려움	-최소한의 통제장치이자 관리체계로서의 의미 -학습적인 면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음 -운동하지 않아 아이들이 살찐	
	수강관리 체계화 필요	-학생수강관리 체계화가 필요함	-수강관리 체계화 절실히 필요 -관계중심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역할 중요함

하위범주를 나눌 필요성이 없었다. 중고생 학부모들의 경우 수업조력자로서의 역할 필요성은 상황 별로 선택적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신입생 아들들 둔 모의 경우 출석과 과제 모두에 모가 상당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자녀의 수업조력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엄마역할도 해야 하지만 선생님 역할도 해야 하고 보조역할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계속 상주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나가있어도.... 조금, 잔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출석체크를 까먹고 안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과학고)는 출석체크가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다 보니 까.. (1차_참가자G)

중고생들의 경우, 학습조력의 부담이 별로 없는 대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수업 중 다른 동영상 시청하는 등의 무절제한 생활통제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온라인 수업을 틀어놓고 그냥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컴퓨터는 돌아가고 계속 핸드폰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중·고등학생인데, 제가 감시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2차_참가자H)

2차 면접에서는 이러한 자녀들의 무절제함에 대해 지도할 마땅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통제와 방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부모로서의 어려움과 혼란이 토로되었다. 특히 미디어사용에 대한 무절제를 통제하는 것의 어려움이 표현되었다.

제가 저의 의지로 아이들을 끌고 가면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자유를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편이긴 한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헤이해진 것 같긴 해요. 진짜 눈뜨면 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핸드폰을 피부처럼 들고 다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제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2차_참가자I)

모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식사준비의 부담이 있지만, 그 부담감이 초등생 부모들만큼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들 스스로 차려먹을 능력도 있는데다, 식사를 간소하게 하고 배달음식 등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대처하는 것에서 큰 어려움을 토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와중에 부모 자신의 생활이 제한을 받는 답답함과 불편도 호소되었다.

일단 아이가 수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저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나갔다가도 약속을 안 잡게 되고 (1차_참가자G)

(2) 별로 바뀌지 않는 아빠

부의 역할은 기존의 부모역할분업체계가 그대로 지속 혹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조정을 위한 부모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저희 남편이 귀가시간이 항상 한시, 빠르면 열두시 늦으면 두시, 이렇게 때문에. 거의 아이들 취침시간에 들어오거나 하기 때문에, 뭐 달라진 것은 없어요. 남편은. (1차_참가자H)

2차 면접에서 참가자H는 청소년자녀들의 무절제한 생활태도를 어떻게 지도할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아빠의 양육 참여가 절실하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러한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남편

에게 그것을 요청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남편이 이 남자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는데, 아빠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고 오로지 돈 버는 것에서만 초점이 가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 짐을 지고 가야될까..... (2차_참가자H)

(3) 돕거나 각자 생활하는 형제

중고생 학부모 중 형제가 있는 가족은 두 가족 뿐이었고 모두 남자형제였다. 한가족(H)은 동일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다니는 상황이라 온라인 학교학습을 하면서 형이 동생에게 도움을 주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한 가족(I)은 각자 서로 상관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 2차 면접에서도 이런 양상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다.

2) 가족관계의 변화

(1) 허니문 시기를 거쳐 다시 소원해진 모-자녀

온라인 학교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청소년자녀들과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다. 1차 면접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자녀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집에 있는 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 말하였다.

그전에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썰렁하죠. 그리고 뭐 할 (집안)일도 사실은 없었어요. 애들이 밥도 먹고 들어오는 상황이니깐. 그래서 저는 사실, 들어왔다가 운동하러 나가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 각자 방에 있더라도, 집에 있는..... (1차_참가자H)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옆에서 긴밀히 관찰하게 되면서 청소년자녀들이 왜 자유로움을 갈구하는지, 이들의 학업이나 진로고민의 실

체는 무엇인지 등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가) 저한테 ‘과제 연구를 어떤 어떤 걸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툭 던진다는지, 대상이 저 밖에 없고 엄마니까.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몰랐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구나 발견하게 되고.....(아이의) 멘탈 관리 같은 거를 또 제가 해줄 수도 있고..... 아이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학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어루만져 줄 기회를 좀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구요 (1차_참가자G)

참가자들은 자녀의 등교와 야간자습이 없는 시간적 여유 속에서 서로를 보다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식사하며 예전보다는 조금이나마 대화 시간도 늘어났다고 말하였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긴장이 느슨해진 생활을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도 다소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감지되었다.

저희 아이들도 대화가 많은 아이들은 아닌데, 시간이 많아지고 심적 여유가 아이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랬다면은, 요즘에는 자기들도 여유가 있으니까, 대답도 좀 하고 (1차_참가자H)

늘어난 가사노동과 중년부모의 약해진 건강상태 등을 옆에서 보게 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사조력을 하는 모습도 보고되었다.

자기들도 미안한지 심부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빨래를 널다거나 마트를 갔다 온다거나 설거지 한다거나, 엄마 아빠가 할 일들을, 어쨌든 자기들은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1차_참가자H)

2차 면접에서 새롭게 나타난 주제는 ‘집에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부모 간의 공유활동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뚜렷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닌 공존의 상태가 보고되었고, 이것은 부모에게는 단절의 경험으로, 혹은 그냥 자녀의 발달특성과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경험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조용하게’ ‘각자’ 생활하는 모습은 초등생 부모집단에서 보고되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근데, 중·고등학생이라 그런가, 뭔가 각자 방에 틀어박혀서 문 딱 닫고 미디어와 일체가 되고 저 혼자서 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갈(외출) 수도 없고, 밥 차려줘야 하고, 정말 섬이 되는 것 같아요 (2차_참가자I)

(2) 더 친해지거나 갈등이 생기는 형제

형제관계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면서 형제간에 조력하면서 서로 더 친해졌다는 참가자가 있었고, 같이 있으면 다투는 경우가 있었는데, 참가자 중 형제가 있는 경우가 2가족 뿐이어서 형제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1하고 고3 아이가, 고1 아이가 온라인 수업하면 모르는 것도 있었고, 과제가 있었는데 (같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형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친하지 않았었는데, 형이 과제를 도와주면서 되게 친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요번에 너무 좋았어요 (1차_참가자H)

3) 도움 요청의 목소리

(1) 현재의 학습체계는 통제가 어려움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온라인학습에 대해 ‘학습이 제대로 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 대신, 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자 ‘생활 관리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온라인 개학하기 전까지는 책을 하나도 안 들었었는데, 그나마 온라인 개학하니까, 선생님도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은, 학년마다

다 틀린데, 온라인 수업만 해서 끝내는 과목은 그냥 틀어만 놓고, 많은 아이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그래도 뭐, 그냥 개학이라도 해서 진짜 좋기는 한 것 같아요 (1차_참가자H)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온라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살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즉, 건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게 너무 살도 찌고,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엉덩이가, 남자아이가 엉덩이가 커질 일이 없는데 살이 찼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운동을, 사실 할 시간이 있는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1차_참가자G)

(2) 수강관리 체계화 필요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학교학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교사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한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그러한 교사들의 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성적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인 만큼 출석체크 시스템, 강의수강 체크 시스템 등 학생들의 수강관리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미디어에 몰입하는 청소년자녀들의 모습을 우려하면서, 자녀들을 관계 중심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을 하기도 하였다.

3. 초등생과 중고생 부모집단의 1, 2차 면접 결과 비교

초등생과 중고생자녀는 발달적 차이와 학교학습의 속성 차이로 인해 온라인학습의 상황이 다를 것이 예상되었다. 소수의 참여자에 의한 질적 연구 결과를 일반화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한점을 염두에 두면서 두 초점집단 면접 결과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된 1, 2차 면접결과

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초등생 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습조력과 가사노동의 증가 등 역할과부하를 심각히 호소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학습조력에서 잦은 잔소리와 짜증, 화를 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중고생 부모의 경우, 학습조력이나 식사준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역할과부하는 1차 면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리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미디어 과몰입의 상황과 같은 자녀들의 생활지도 문제에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에서의 모호함으로 인한 갈등이 크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중고생 학부모의 자녀통제의 한계상황으로 인한 부모역할갈등은 2차 면접에서 매우 강하게 표현되었다.

부의 역할 혹은 부모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있던 부모의 역할분담체계가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 상황에서 유지 혹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시간경과와 더불어 모의 역할과중과 스트레스가 심해짐에 따른 부의 역할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초등부모집단에서만 감지되고 있다. 초등부모집단에서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에 대하여 부가 반응하면서 자녀와 모 사이의 중재자역할 혹은 모의 격려자, 지지자의 역할, 더 나아가 아내의 여가를 확보해 주기 위해 부가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중·고등부모집단에서는 2차 면접에서 모의 역할갈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역할 증대나 변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양식을 비교해보면, 초등생 부모집단에서는 자녀의 온라인 학교학습이 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증가를 만들어내며, 1차 면접에서는 공유활동의 증가와 친밀감의 증가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잔소리와 짜증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면접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모의 폭발할 것 같은 부정적 감정이 빈번히 표현되었다. 반면, 중고생 부모집단의 경우 1차 면접에서는 허니문 시기를 거치면서 오랜만에 집에 머무는 자녀와 약간의 교류증가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2차 면접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가족원 간에 각자 자신의 영역을 가지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류의 빈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원한 모습을 보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들은 온라인 학교학습이 어머니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하였다. 어머니들의 부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식사준비부담의 증가와 자녀 학습조력의 부담이 기존의 역할에 추가되면서 특히 초등생 부모에게서 더 심한 ‘역할과 부하’가 발생했다. 여성들의 이와 같은 재난 시 돌봄 역할 과부하 현상은 선행연구(김영란, 2020; 진미정 외, 2020)에서 양적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둘째, 초등생 부모의 경우, 전통적인 ‘엄마’ 역할에 더해진 ‘선생님’ 역할 사이에서 부딪히는 ‘다중역할갈등’도 나타났다. 이는 역할자체의 속성이 다른 두 가지 역할을 한 명의 가족원이 수행함으로 오게 되는 갈등현상이다. 셋째, 중고생 부모의 경우는 기상시간이나 미디어 과몰입 등의 생활태도 지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면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모르는 ‘역할모호성’에 봉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들의 이러한 역할모호성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극

명하게 나타난 바 있는데(배주미 등, 2015)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의 참여자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부담증가는 취업 여성이라고 예외적일 수 없었고 이 또한 취업여성들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영란(2020)의 결과와 일관된다. 반면 어머니들의 자기돌봄은 현격히 축소되었는데, 이는 진미정 등(2020)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는 우려되는 현상이다.

둘째, 어머니들의 이러한 역할과중에 비해 자녀나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은 부담이 늘었다고 보기 힘든 결과가 나타나지만, 아내의 힘듦과 짜증에 반응하여 남편이나 만자녀의 역할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많은 경우는 남편의 부모역할 혹은 가사분담은 평소의 분담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여전히 가정 내 일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신에게 분담된 구체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역할의 ‘명확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어머니들의 역할과부하는 만자녀의 역할변화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녀들의 경우 형제 서열이 높은 맏이의 동생 돌봄 역할이 추가되고, 자녀들의 가사 참여가 엿보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었다. 변화하는 가족환경 하에서 만자녀 스스로 본인의 역할 필요성을 인지한 것인지 어머니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자녀는 의젓해지고 막내자녀는 학습의 방해꾼 역할로 규정되는 이러한 자녀체계 내에서의 역할분화 경향은 가족으로 역할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변화로 관찰되며, 이러한 변화의 본질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역할과중의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은 짜증이나 화, 혹은 암묵적인 방식을 통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힘듦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정적 감정과 의사소통이 가족체계 전체에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며 만성적 갈등의 징후를 잉태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신호’는 어떤 남편에게는

도움 요청의 신호로 해석되어 남편이 모-자녀관계의 조정자, 지지자와 격려자, 자녀양육자 등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피드백을 보여준다. 어떤 남편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으로 받기도 했다. 만일 이로 인해 부부간의 긴장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이미 모로 부터 잔소리 세례를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중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은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로서, 어머니의 역할과중은 결국 가족원 전체의 삶의 질과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악화가 학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가족변수 있음(진미정 등, 2020)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약화시키는 시의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자녀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학교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다면적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초등생 모에게는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새로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편안한 관계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긍정적 부분보다, 학습에 집중 못하고 과제도 미루는 자녀들로 인한 답답함과 불안, 짜증이 모들의 지배적인 감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의 부모들은 늦게 일어나고 동영상과 스마트폰에 몰입해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난감해했다. 함께 있어도 대화나 상호작용이 뚜렷이 증가하지 않는 ‘소원한’ 관계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다. 여기서, 진미정 등(2020)의 연구에서, ‘자녀돌봄의 부담’이나 ‘자녀와의 관계악화’ 등이 학령기 부모들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연구는 자녀돌봄의 증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변수화시켜 포함시켰는데, 추후에는 자녀돌봄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초등생과 중고생 부모에게서 다를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재난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Walsh, 1996)을 높이려면 평소 가족의 기능 향상을 위해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 재난상황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증가와 젠더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재난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부모의 양육역할분담 및 가사노동 분담체계 등이 확장적으로 가동되어야 관리될 수 있다. 평소 만들어진 의사소통의 질과 관계의 친밀성은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재난 시 가족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갈등을 줄여줄 것이다. 가족끼리 고립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준비도 평소에 되어있어야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융통성,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세 가지 축(Olson, 2000)이 적절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면, 그것은 ‘사회적 재난상황에서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가족’(진미정 등, 2020)을 보다 탄력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자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코로나 상황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역할과부하는 잘 관리되지 못할 경우 가족의 긴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이 3-4주 경과한 2차 면접에서는 초등생이나 중고생 어머니 모두 높은 스트레스를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에 대한 화내기 등으로 파급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상호작용이 연쇄적 효과를 통해 가족 내 긴장을 높이게 된다. 이런 상태가 심해질 경우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비화하게 된다. 재난 상황에서 여성 및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성 평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족전체의 안녕, 특히 가족 내 취약자인 아동이나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 학교학습 상황에서 부모들의 고충으로부터 우리나라 학교나 교육당국에 대해 요청하는 사항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온라인학습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자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공부 습관과 학습동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들의 실시간 상호작용적인 지도를 원하였다. 또한, 자녀들의 온라인 학교학습에 적절한 주거환경 및 기기 등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났다. 학교 급식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이러한 부모들의 의견은 온라인학습의 개선점에 대한 에듀테크 중심의 관점(김상미, 2020; 배영임, 신혜리, 2020)이나 교육격차의 문제(김상미, 2020; 오재호, 2020)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학습조력자로서의 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가족체계의 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학교학습은 가족의 안정 하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부모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뿐 아니라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온라인 학교학습이 만들어낸 가족의 변화를 부모의 경험에 기초하여 질적인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속성상 불가피한 일반화의 한계에 더하여, 초등부모의 경우 풀타임 취업을 한 여성참가자가 없었고 아버지의 참여가 없어 아버지의 경험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중·고등부모의 경우 남자아이만 있는 경우가 많아 여아가 있을 경우에 대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면접 시점과 관련하여 온라인 개학 후 2달 이내의 상황이 포착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장기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족 내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이라는 방법이 가지는 장점도 있으나, 집단에서 꺼내기

쉽지 않은 각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어, 관계의 역동과 같은 섬세한 부분이 연구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난 상황에 시행된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해 한국 가족 안에서 경험된 변화를 체계론적으로 조명하는 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김남순(2020).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보건의료연구란 무엇인가?. *보건사회연구*, 40(3), 5-9. <https://doi.org/10.15709/hswr>
- 김상미(2020). 코로나 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6), 1091-1100. <https://doi.org/10.9728/dcs.2020.21.6.1091>
- 김송이(2020).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6), 423-431. <http://dx.doi.org/10.15207/JKCS.2020.11.6.423>
- 김영란(2020). 코로나 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정책 의제. *제3차 코로나19관련 여성가족분야별 릴레이 토론회자료집,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8.
- 김유식, 정병철(2020). 코로나 19 상황이 전업 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6), 567-578.
- 박재우(2020). 장애대학생의 관점에서 살펴본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실태와 문제점. *특수교육*, 19(3), 31-53. <https://doi.org/10.18541/ser.2020.08.19.3.31>
- 박혜진, 김한성, 박한우(2020). COVID-19 팬데

- 믹과 온라인 개학: 트위터 담화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6), 2535-2549. <https://doi.org/10.37727/jkdas.2020.22.6.2535>
- 배영임, 신혜리(2020). 코로나 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 & 진단*, 416, 1-26.
- 배주미, 조은숙, 조영미, 김경은(2015). 부모가 인식한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문제와 사용지도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143-164.
- 사용진, 박소영(2016). 재택근무의 양/빈도와 재택근무 만족도와 의 관계 분석: 미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1), 179-205.
- 오재호(2020). 코로나 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 & 진단*, 421, 1-25.
- 임예직, 문영민(2021).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19로 인한 직장 내 변화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31, 123-148. <https://doi.org/10.24226/jvr.2021.4.31.1.123>
- 장은하(2016). 재난과 젠더: 취약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43, 16-23.
- 장은하, 김희(2020). 코로나 19와 성 불평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54, 1-9.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http://dx.doi.org/10.6115/fer.2020.032>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0).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https://doi.org/10.24300/jkscw.2020.12.69.4.59>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0a>
- Chung, G., Lanier, P., & Wong, P. Y. J. (2020).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harsh parent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during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in Singapor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12. <https://doi.org/10.1007/s10896-020-00200-1>
- Lee, J., Chin, M., & Sung, M. (2020). How has COVID-19 changed family life and well-being in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1(3-4), 301-313. <https://doi.org/10.3138/jcfs.51.3-4.006>
- Morgan, D. L., & Krueger, R. A.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Thousand Oaks, CA: Sage.
- Nowell, L. S., Norris, J. M., White, D. E., & Moules, N. J. (2017). Thematic analysis: Striving to meet trustworthiness cri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6(1), 1-13. <https://doi.org/10.1177/1609406917733847>
- Möhring, K., Naumann, E., Reifenscheid, M., Wenz, A., Rettig, T., Krieger, U., Friedel, S., Finkel, M., Cornesse, C., & Blom, A. G. (2020). The COVID-19 pandemic and subjective well-being: Longitudinal evidence on satisfaction with work and family. *European Societies*, 23(4), 1-17. <https://doi.org/10.1080/14616696.2020.1833066>
-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44-167. <https://doi.org/10.1111/1467-6427.00144>
- Perlman, D. (2020). A finale for JCFS' "Global family perspectives on COVID-19" special issue: Themes and reflection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1(3-4), 445-453. <https://doi.org/10.3138/>

- jcfs.51.3-4.017
- Save the Children(2020).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글로벌 서베이 한국 결과 보고서). <https://m.sc.or.kr/mobile/news/reportView.do?NO=70746>
- Walsh, F.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6.00261.x>

접 수 일: 2021. 03. 08

심 사 일: 2021. 05. 17

게재확정일: 2021. 06. 24

A Study of Mothers' Experience on the Changes of Families due to Children's Online School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o, Eunsuk**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Doctoral Student: Kim, Da-ae***

Abstract

Objectives: Online schooling could have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family relationships along with many other chan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mothers' experience of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due to children's online schooling. **Method:** Focus group interviews involving four mothers of elementary students and four mothe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conducted twice per group to gain qualitative data for the research. **Results:** The role overload of mothers as housewives, as well as study supervisors, were found to be salient and the resulting stress heavy, while the respective roles of father and children were not shown to change much. Mothers' stress led to annoyance with their children and spouses, which could possibly have led to other changes in the family system. The online schooling of children showed double-sided effects;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improved, while in contrast, so did quarrels and tensions among them. **Conclusions:** It was discussed that enhancing flexibility in regard to family roles and relationships could be the basis for family resilience in the event of a social disaster.

Key words: COVID-19, online schooling, family change, mother's experience, focus-group interview

*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support from the Sangmyung University intramural research fund in 2020.

** Corresponding Author: grace123@smu.ac.kr, <https://orcid.org/0000-0003-2732-4147>

*** <https://orcid.org/0000-0002-4549-1945>